

慶州金氏族譜舊誌

大德十一年丁未三月日興國三里丙子年戶口外盈注簿金立戶首戶口籍及三國史相準施行新羅辰韓始祖朴赫居世前漢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即位立國第四代昔脫解嗣立九年春三月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雞鳴聲使瓢公視之有金色小櫃掛樹枝白雞鳴於其下瓢公還告王使人取櫃開之小男兒姿容奇偉王喜謂左右曰此豈非天遺我以令胤乎乃收養之及長聰明多智略乃名閼智出自金櫃故以金爲姓改始林爲雞林後以閼智爲大輔閼智生勢漢勢漢生阿道阿道生首留首留生郁甫郁甫生仇道仇道生味鄒至十三代味鄒嗣立爲王是金氏有國之始也先王顧命曰勿論子壻以長且賢者嗣位以昔氏爲始祖孫女夫又金氏繼出故也十七代柰勿大王十九代訥祇大王二十四代眞興大王二十五代眞智大王二十九代太宗大王三十代文武大王三十一代神文大王三十三代聖德大王三十五代景德大王三十六代惠恭大王初新羅王朴氏昔氏金氏三姓相傳嗣立享國幾千年至末王敬順王金傳來于高麗王太祖建改新羅爲慶州賜敬順王食邑永芬公林興公波干巖宗波干季邕阿盖公三韓壁上功臣內史令金禮謙太子少傳金周鼎平章事金義珍殿中內給事金侯德西面都監判官金壽之閣門祇候金永固金紫光祿大夫中書侍郎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禮部翰林院事太子少傳 贈諡貞肅公金仁鏡甲寅年春場第二人及第銀青光祿大夫尚書左僕射翰林學士承旨金執甲午年春場第一人及第中正大夫典客令金瑩通直郎版圖正郎金瑞仁奉翊大夫禮儀判書金冲漢通德郎萬頃縣令繼明王二十四年甲寅有貢舉我祖金良鏡請於金君綏曰吾二人赴試則君必爲壯元矣若停不赴則我得志而君亦明年爲壯元矣君綏曰諾旣而食言入在場屋良鏡不之知也呈詩卷後作詩云三丁燭盡天將曉入角章

成桂已香落月泮庭人優優不知誰是壯元郎放榜君綏爲壯元良鏡爲亞元由是怏怏常有不豫色然後改名仁鏡忠憲王六年以起居注出佐元帥趙冲幕與元帥將合臣札廳合力攻破遼賊于江東城遂結歡盟知壬午壬辰二舉位至平章事乙未卒諡貞肅忠憲王二十一年甲午李奎報知貢舉子鍊成赴試後以試草呈貞肅貞肅以承宣入直見而喜且作詩曰昔年金榜錯吾名白髮如今憤未忘心膽豁然緣底事鍊成今作壯元郎果占壯元官至左僕射翰林別曲有仁鏡詩賦之語詩賦名於世可知其宮詞云銀臺承制五更來月在西南玉漏催再度請將金鑰出千門萬戶一時開其公材公望寬弘雄偉氣像猶可想見也自高祖仁鏡至今五六世矣其間或興或衰衣冠蟬聯不絕如線余惟不肖繼祖父業從仕出判長興府官至奉翊有子孫繼姓傳家亦榮矣哉此豈薄劣庸材所能致實祖先積德之餘緒也敢不忖度而喜懼哉謹按崔拙翁所撰東人文集及以傳家所聞書于軸以貽諸後願吾子孫夙夜匪懈兢兢謹慎不墜祖父令聞善持門戶無忝爾所生垂美休于無窮幸甚

前朝奉翊大夫禮儀判書

金冲漢 謹誌

慶州金氏族譜舊誌(譯文)

大德(元나라 成宗의 年號임)十一年丁未(高麗 忠烈王三十三年西紀一三〇七年)三月 日興國三里 丙子年 戶口 外盈注簿 金立戶首 戶口籍 및 三國史記를 대조하여 施行함이라(以上은 高麗時 戶籍의 실명인듯 함)

新羅(辰韓)의 始祖 朴赫居世가 前漢(유방(劉邦))이 세운 漢나라 西漢이라고도 함)의 宣帝 五鳳(宣帝의 年號)元年(왕이 즉위한 첫해)甲子(西紀前五十七年)四月에 即位(왕위에 오름)하

여나라를 세웠다 이후 제 四代 昔脫解가 王位에 오른지 九年 春三月 어느날 밤에 金城(慶州의 古號) 西쪽 始林 숲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나는지라 왕께서 듣고 瓢公을 시켜가 보게 하니 金빛나는 적은 함(계)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데 흰닭이 크 아래에서 우는지라 瓢公이 돌아와서 사실대로 고하니 왕께서 사람을 시켜 함을 열어보니 적은 男兒가 있어 용모가 기특하게 생겼는지라 왕께서 기뻐하시고 左右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내려 주심이라 하고 마침내 데려다 기르니 장성함에 총명하여 지략이 출중하였다 이에 關智라 이름을 하고 금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金氏로 姓을 삼고 始林의 地名을 鷄林으로 고쳤다 그리고 후에 關智를 太輔로 삼았다 關智가 勢漢을 낳고 勢漢이 阿道를 낳고 阿道는 首留를 낳고 首留는 郁甫를 낳고 郁甫는 仇道를 낳고 仇道는 味鄒를 낳았다 新羅 第十三代에 이르러 味鄒를 세워 王을 삼았으니 이로부터 金氏로 나라의 임금이 비롯되었다 先王께서 顧命(임금이 臨終時에 후사를 부탁하는 유언)하여 이르기를 아들이나 사위를 물론하고 나이 많고 어진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 하시고 昔氏로써 始祖의 孫女夫(손녀사위)를 삼았으니 또한 金氏로 繼出하였기 때문이다

十七代 奈勿大王 十九代 訥祗大王 二十四代 眞興大王 二十五代 眞智大王 二十九代 太宗大王 三十代 文武大王 三十一代 神文大王 三十三代 聖德大王 三十五代 景德大王 三十六代 惠恭大王이 계셨다 처음에 新羅의 王은 朴氏 昔氏 金氏의 三姓이 서로 전하여 왕을 세워 나라를 千餘年을 지켜 오다가 末王인 敬順王 金傳에 이르러 高麗에 항복하니 太祖王建이 新羅의 도읍을 고쳐 慶州

라 하고 敬順王에게 食邑으로 하사하였다 이후로 顯達한 분은 永芬公 林興公 波干嶽宗 波干
李邕 阿蓋公은 三韓 壁上功臣이요 內史令 金禮謙 太子少傅 金周鼎 平章事 金義珍 殿中內給事 金侯
德 西面都監判官 金壽之 閣門祇候 金永固이오 金紫光祿大夫 中書侍郎 平章事 修文殿太學士 監修國
史判禮部翰林院事 太子少傅 贈諡貞肅公 金仁鏡은 甲寅年(高麗 明宗二十四年·西紀一一九四年)
春場榜에 第二人으로 급제하였고 銀青光祿大夫 尚書左僕射翰林學士 承旨 金執는 甲午年(高宗二
十一年·西紀一二三四年) 春場榜에 第一人으로 급제하였고 中正大夫 典客令 金瑩이 있고 通直
郎 版圖正郎 金瑞仁이 있고 奉翊大夫 禮儀判書 金冲漢이 있고 通德郎 萬頃縣 金金絃가 있다
明宗二十四年 甲寅에 貢舉(고을에서 준수한 선비를 선발하여 추천하는 일)가 있었는데 우리의
先祖 金良鏡께서 金君綏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과거 시험에 나가면 그대가 반
드시 壯元하리라 만약 쉬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뜻을 얻은 것이오 그대는 또한 明年에 壯元
하리라 하니 君綏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고는 벌써 食言(약속한 말을 실행하지 아니
함)하고 과거보는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데 良鏡은 알지 못하였다 試卷(시험의 답안)을 바치
고 뒤에 詩를 지어 이르기를 三頃에 촛불 다하니 하늘이 밝아오고 八角殿閣에 문채가 밝으
니 桂花가 향기롭네 落月이 泮庭(成均館)에 비치니 선비들이 정숙한데 누가 壯元郎일지 알지
못하겠도다 榜(합격자 명단)이 나감에 君綏가 壯元이 되고 良鏡이 亞元(次壯元 즉 두번째로
합격함)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怏怏(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모양)하여 항상 기꺼하지 않았
다 그런 후로 仁鏡으로 이름을 고치었다 忠憲王(高麗 高宗임금)·六年(己卯·西紀一二一九)

起居注(從五品の 관직)로서 元帥 趙冲의 幕下에 나가 보좌하여 원수와 같이 힘을 합하여 江東城에서 遼賊을 쳐 부수고 드디어 우호의 맹약을 이루었다

壬午(高宗九年・西紀一二二二年)와 壬辰(高宗十九年・西紀一二三二年)에 두번 과거하여 벼슬이 平章事(中書門下省의 正二品벼슬)에 이르고 乙未(高宗二十二年・西紀一二三五年)에 卒하니 諡號는 貞肅이다 忠憲王(高宗)二十一年甲午(西紀一二三四)에 李奎報가 知貢舉(과거를 주관하는 시관)로 과거를 보이는데 公의 아들 鍊成(左僕射 執의 初諱)이 과거에 응시한 후에 試草를 貞肅公에게 드려니 貞肅公께서 承宣(承旨의 별칭)으로 入直하여 기뻐하고 또 詩를 지어 이르기를 옛날 과거에 내 이름이 어긋졌더니 白髮이 된 이제까지 憤을 잊지 못했었네 마음이 트이네 이제 오늘 일이여 鍊成이 이제 壯元郎이 되었구려 하였다 과연 壯元이 되어 벼슬이 左僕射에 이르렀다

翰林別曲에 仁鏡의 詩賦가 들어 있으니 詩賦로 世上에 이름이 있었음을 가히 알겠도다 그 宮詞에 이르기를 銀臺(承政院의 별칭)에 入直하여 五更에 이르러니 달이 西南에 있어 玉漏(宮中の 물시계)를 재촉하네 두어번 청하여 金鑰(자물쇠)을 열고 나가니 千門萬戶가 一時에 흰히 열렸구려 하였다 그 詩를 보면 公의 재목됨이 모든 이에 바램이 되었고 또한 성정이 너그럽고 컸으니 웅대한 기상을 오히려 생각해 보겠도다

高祖 仁鏡으로부터 이제 이르기 五六世이라 그간에 후 흥하고 후 쇠하였으나 衣冠(벼슬아치의 일칭)이 계속 이어 실같이 끊이지 않았으니 생가컨데 不肖한 내가 祖父(할아버지 아버지

또한 先祖를 이름)의 業績을 이어 벼슬에 나가 長興府에 出判하였고 奉翊大夫에 이르렀다 그
리고 子孫들이 姓을 이어 집을 전해가니 또한 영예롭다다 이어져 소박하고 용열한 재주를
능히 이루었은 것인가 실로 先祖께서 積德하신 남어지이다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기쁘면서 도
한편 두렵도다 삼가 崔拙翁이 지은 東人文集을 살펴보고 집에 전해 오는 것을 들은대로 기록
하여 모든 후손에게 전하나니 원컨데 나의 子孫들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행동은 삼
가하여 할아버지의 명예를 떨어치지 않고 門戶를 잘 유지하여 그 所生을 욕됨이 없게 하면 아
름다움이 無窮하리니 심히 다행한 일이다

前朝(高麗) 奉翊大夫禮儀判書 金冲漢은 삼가 기록하노라

貞肅公金仁鏡傳

金仁鏡初名良鏡慶州人平章事義珍四世孫父永固爲興郊驛使公清慈惠不答一人後緣金逋當逮繫寧州獄
當死興郊吏民詣處置使涕泣請貸終得免第宅沒官妻子飢寒無所托興郊吏斂米帛厚遺之仁鏡才識精敏善
隸書明宗時中第直史館轉起居舍人高宗初趙冲討契丹兵于江東辟仁鏡爲判官時蒙古率哈眞東眞率子淵
請兵粮冲欲調之難其人仁鏡請行冲曰幕中籌策君所職耳冒險往堞非所習何請爲仁鏡曰嘗聞蒙古布陣取
法孫吳余少讀六書熟知之故敢請冲乃遣之哈眞子淵攻丹兵于岱州屯城西仁鏡往見之兩元帥張樂宴慰極
歡而罷仁鏡結方陣於州西門外兩元帥登高而望蒙古四十六人被甲帶劍相對立仁鏡使才人列軍前鼓譟呈
雜戲又使善射者二十餘人一時俱射矢入州城契丹登城望者皆奔避兩元帥歎軍容整肅復邀仁鏡上座宴慰

論功擢樞密院右承宣後東眞寇定長二州仁鏡知中軍兵馬使與戰敗績明年被讒貶尚州牧使故舊無一人相送者惟門生餞于郊仁鏡有詩云一鞭幾盡掃胡塵萬里南荒作逐臣玉筍門生多出餞感澁難禁淚沾巾又題州壁云敢向蒼天有怨情謫來猶自得專城何時鈴閣登黃閣太守行爲宰相行未幾拜翰林學士尚書左僕射陞中書侍郎平章事仁鏡文武吏才俱瞻天資清婉無一點塵累高文大冊皆出其手尤工近體詩賦牛童馬走無不知其名高宗乙未卒諡貞肅

貞肅公 金仁鏡 傳(譯文)

金仁鏡 初名은 良鏡이니 慶州人으로 平章事 義珍의 四世孫이라 아버지는 永固이니 興郊驛使로 있으면서 公正하고 淸廉하며 자애스러워 한 사람도 매를 때리지 않았다 후에 金逋의 체임에 연루되어 寧州獄에 갇히어 죽게 되었는데 興郊의 아전과 백성들이 處置使에게 나아가 울면서 용서를 청하여 마침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주택을 관청에 물수당하고 妻子가 飢寒(배고프고 추위에 췌)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데 興郊아전들이 쌀과 비단을 건우어 후히 보내 주었다

仁鏡은 才識이 정밀하고 민첩하며 隸書를 잘 하더니 明宗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직사관으로 있다가 起居舍人에 옮기었다 高宗初에 趙冲이 江東에서 絶안병을 토벌할 때에 仁鏡을 불러 관관을 삼았다 때에 몽고에서 哈眞 東眞이 子淵을 거느리고 兵機가 軍糧을 청하니 趙冲이 조처코자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고르기 어려웠다 이때 仁鏡이 가기를 청하니 冲이 말하기를 幕中

(즉 軍中)의 籌策(계책·책략)은 그대의 직분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에 감을 익힌바도 없
 이 어떻게 청하는가 하니 仁鏡이 대답하기를 일찍 듣사옵건데 몽고의 布陳(진치는 법)은 孫
 吳(孫武와 吳起 모두 春秋時代의 兵法의 大家)의 兵法을 取하였다 하옵니 다 내에 少時의 六
 書(六韜三略의 兵書)를 읽어 익히 알기 때문에 감히 청하옵니 다 하니 冲이 이에 보내게 되었
 다 哈眞子淵이 岱州에서 結安병을 치고 城 西쪽에서 둔치고 있는지라 仁鏡이 가 보니 두 원
 수(元帥)가 풍악을 베풀고 잔치를 벌여 즐거움을 다하고 헤어져 있었다 仁鏡이 고을 서쪽 門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두 원수가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고 있고 몽고의 四十六人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상대하여 있는 것이었다 仁鏡이 才人을 시켜 列軍하고 있는 앞에서 북을 치
 며 잡희(雜戲)하여 시끄럽게 하고 또 활 잘 쏘는 군사 二十餘人으로 하여금 一時에 활을 쏘
 며 성으로 들어오니 結安이 성에 올라 바라보던 자들이 모두 도망하여 피하는지라 두 원수가
 軍容의 整肅(정돈되고 엄숙한 모양)함을 칭탄하고 다시 仁鏡을 맞이하여 상좌에 모시고 잔치
 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論功하여 樞密院右承宣에 발탁되고 후에 東眞이 定州 長州 등 두 고을
 을 노략질하니 仁鏡이 知中軍兵馬使로서 적과 싸워 지니 이듬해 참소를 입어 尚州牧使로 강
 등되었는데 故舊(오래 사귀었던 친구)로 한 사람도 전송하는 이 없었고 오직 門生들이 郊外
 에 나와 전송하였다 이에 仁鏡이 詩를 지어 읊으기를 한 채찍으로 이미 오랑캐를 다 무찔렀
 는데 萬里길 南荒(南方의 거친 땅)에 逐臣(추방당한 신하)을 지었네 玉筍같은 門生들이 많이
 나와 전송하니 감회깊음을 금할수 없어 눈물이巾을 적시누나 또 尚州고을에 부임하여 壁上

에 부친 詩에 이르기를 蒼天(푸른하늘)을 바라보니 원통함도 있지만은 쫓겨와서 오히려 專城
(고을의 원)을 얻었도다 어느 때나 부름 받아 黃閣(議政府 政丞의 別稱)에 오를진가 太守로
고을 다스리니 또한 宰相의 行이로세 얼마 안되어 翰林學士 尚書左僕射에 拜하고 中書侍郎平
章事에 승임되었다

仁鏡은 文武를 겸전하여 吏才(관리로써의 재능)를 구비하였고 천품이 맑고 깨끗하여 一點의
속됨이 없었으며 高文大冊(높은 文章과 큰 冊등은 모두 그 솜씨에서 나왔다 더욱이 近體 詩
賦에 조예가 깊었으니 牛童馬走(소치는 아이 말먹이는 사람 즉 하천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
(名聲)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高宗乙未(西紀一二三五年)에 돌아가시니 貞肅의 諡號를 내리
시다

雞林遺墟碑銘

新羅無史非無史也由世之人不讀也新羅傳朴昔金三姓立國爲千年雞林即闕智誕生之地今屬嶺南之慶州
府世之以金爲氏者皆以闕智爲始祖東人至今傳其地而至其始次沿革之載於史者或未詳焉今因其銘碑略
識之初脫解時聞始林雞鳴得金櫝開而視之有小兒在王乃收養之名曰闕智賜姓金氏更名其林曰雞林闕智
七世孫味鄒娶助貴王女王無子味鄒遂代立號爲尼師今自味鄒歷奈勿實聖至訥祇是爲麻立干教民服牛車
訥祇薨子慈悲立慈悲薨子炤智立始開市肆以通四方之貨炤智薨子智證立禁人殉葬命州郡勸農始用牛耕
定國號曰新羅改方語尼師今麻立干稱王製喪服王薨諡智證諡法始此子法興王立頒律令製百官公服稱年

號曰建元歷眞興眞智至眞平王無子女善德主立遣子弟於唐請入國學善德薨眞德主立眞平弟國飯女始倣唐制爲官服遣使告破百濟主自製太平頌織錦文以獻高宗嘉之始行中國年號眞德薨太宗武烈王立眞智孫與唐將蘇定方共滅百濟武烈王薨子文武王立令夫人服中國衣裳與唐兵共滅高句麗頒曆法鑄百司州郡印文武王薨子神文王立遣使入唐請禮典并詞章則天后令寫吉凶要禮採文詞涉於規戒者敕成五十卷賜之自神文歷孝昭王至聖德王始造漏刻歷孝成景德惠恭宣德至元聖王定讀書出身法自元聖歷昭聖哀莊憲德興德僖康閔哀神武文聖憲安景文憲康定康眞聖孝恭至敬順王以國讓高麗王子以爲不可王曰寡人孤危勢不能全使無辜之民肝腦塗地吾不忍也乃遣侍郎金封休上書稱臣國遂絕金氏歷三十八世凡六百二十六年蓋承二氏叛守之後享國最長其禮樂文物自此稍稍起矣自新羅始通唐時中國史官之法立已久矣而東方僻陋無文章其史多不傳高麗金富弼撰羅史其書略具而學者不專治東史又其板本久而剋毀行于世者幾希君子甚懼焉公轍之按嶺南也叅奉金成杰自慶州來謁請雞林記蹟之文善哉其推本而慮遠也地固可傳也而事有大於地者烏可以不書也孔子生於周而曰丘殷人也自以微子之後也又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今金氏之散在四方者無慮千百家而皆以新羅爲祖與孔子之於殷無異也豈可言夏殷之禮而杞宋之文獻不足徵也後有善讀此碑者庶幾取以補史之闕也銘曰

苑彼雞林興王之基孰敢不敬我銘在碑維羅有都曰彼東京鳳棲紫玉汶水流清球琳琅玕有魴有鯉其服尚素彼都人士有女鬢髮士其髻兮厥俗朴厚禮尚拜稽婚姻之好維酒與食君子攸居樂國樂國維嶽降神生崔及薛暨暨角干用張我伐旣文旣武四方爲憲人文肇闡才彥滾滾朴始厚基昔又強幹暨稱新羅文質彬煥厥初之生誕于雞林金毓以衍式至于今何德之厚何祿之長本支百世俾熾俾昌銘採風謠文以記事方伯之職子孫之思

嘉義大夫慶尚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邱都護府使奎章閣直提學知製

教南 公轍 撰

通政大夫慶州府尹兼慶尚道兵馬節制使

崔獻重 書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 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事官

後孫 熙周 篆

崇禎紀元後三癸亥二月

日

雞林遺墟碑銘(譯文)

新羅의 史記가 없다고 하나 史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新羅
는 朴昔 金三姓이 傳하여 나라를 세운지 千年이 되었다 雞林은 즉 關智가 탄생한 곳으로
지금은 嶺南의 慶州府에 속하였다 세상에 金氏로 姓을 쓰는 분은 모두 關智를 始祖로 하고
있다 東國사람이 지금에 그 땅을 전하여 이르니 그 始次와 沿革이 史記에 실림이 후자상치
못하다 이제 그 碑銘을 인하여 간략히 기록하니 처음 昔脫解王 때에 始林의 닭우는 소리
를 듣고 金槽을 얻어 열어 보니 小兒가 들어 있는지라 王이 이를 데려다 기르고 이름을 關智
라 하고 金氏로 賜姓(왕이 姓을 하사함)하고 그 始林 숲을 이름을 고쳐 鷄林이라 하였다 關
智의 七世孫 味鄒가 助賁王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王이 아들이 없으므로 味鄒를 드디어 代
를 세워 니사금(尼師今)이라고 칭호하였다 味鄒王으로 부터 奈勿王 實聖王을 지내어 訥祇王
에 이르러선 임금의 칭호를 마립한(麻立干)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의 服裝 즉 옷해입는 법고

소로서 수레 끄는법을 가르쳤다 訥祗王이薨(王公이나 貴人の 죽음)하니 아들 慈悲王을 세웠고 慈悲王이 죽으며 아들 炤智王을 세웠으니 비로소 市肆(시사·즉 저자)를 열어 四方의 財貨를 통하게 하였다

炤智王이 죽으며 아들 智證王을 세웠으니 사람들의 순장(殉葬·순사(殉死)한 사람을 묻는 일)을 금(禁)하고 주군(州郡·고을)에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고 소로서 밭가는 법을 쓰게 되었으며 國號를 정하여 新羅라 하고 尼師今 麻立干 등의 方語(사투리)를 고쳐 王이라 칭하고 상복(喪服) 상중에 입는 옷(을) 제정하고 왕이 죽으니 智證이라 諡號하였으니 諡(생전의 공덕을 칭송하여 주증하는 칭호)하였으니 시호의 법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아들 法興王이 율령(律令·나라를 다스리는 法律)을 반포하고 百官의 公服(공무중에 입는 관복(官服))을 제정하였으며 年號를 建元이라 일컬었다 이로부터 眞興王 眞智王을 지내고 眞平王에 이르러 아들이 없으므로 딸 善德으로 王을 세웠다 善德王이 子弟를 唐나라에 보내어 國學의 제도를 청하여 들여왔고 善德王이 죽으며 眞德을 세워 王을 삼았으니 眞平王의 아우 國飯의 딸이다 비로소 唐制(당나라의 문물제도)를 본받아 官服을 하고 사신을 보내어 百濟를 칠것을告하고 스스로 太平頌을 지었으며 비단베를 짜아 무늬를 넣어 바치니 唐나라 高宗이 아름답게 여기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中國年號를 쓰게 되었다 眞德王이 죽고 太宗武烈이 王位에 올랐으니 즉 眞智王의 孫子이다 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百濟를 쳐부서 멸망시켰다 武烈王이 죽으며 아들 文武가 왕위에 올랐다 夫人들에게 中國의 衣裳을 입게하고 唐兵과 함께 高句麗를

滅亡시키고 歷法을 반포하고 百司(百官)와 州郡의 官印(官用으로 쓰는 圖章)을 주조하였다
文武王이 죽고 아들 神文王이 왕위에 올라 사신을 보내어 唐나라에 들어가 禮典(한 나라의
예절을 규정한 제도)과 詞章(詩文)을 청하니 天后(中國의 天子)께서 令하여 吉凶要禮를 쓰고
文詞를 채택하여 規戒할 것을 추려 五十卷을 만들어 下賜하였다 神文王으로 부터 孝昭王을
지나 聖德王에 이르러 비로소 漏刻(물시계를 만들었다) 孝成王 景德王 惠恭王 宣德王을 지내
어 元聖王에 이르러서 讀書하는 사람에게 出身(관직에 등용시킴)의 法을 제정하였다 元聖王
으로 부터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 興德王 僖康王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眞聖王 孝恭王을 지내어 敬順王에 이르러 나라를 高麗에 사양하였다 이에 王子들이
不可하다 하니 敬順王이 말하기를 寡人(왕의 自稱)의 나라가 외롭고 위태하여 형세가 능히
보전치 못하게 되었으니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肝腦塗地(참살 당하여 간과 뇌 등이 땅에 흘
여지고 시체는 그냥 방치됨)를 내 참아 못하겠다 하고 이에 寺監(侍郎) 金封休를 高麗에 보내
어 글을 올려 臣下로서 稱하니 나라가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 金氏는 三十八世에 무릇 六百二
十六年을 지내게 되었다 또 朴氏 昔氏의 두 姓氏와 함께 이어 나라를 지킴이 가장 오래 되었
으니 그 禮樂文物이 이로부터 점점 일어나게 되었다 新羅에서 唐나라와 交易을 통하였는데
그때에 唐나라에서는 史官의 法을 세운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東方은 僻陋(궁벽하고 누
추함)하여 文章이 없었으니 그 史記가 많이 전하여 지지 않았다 高麗때 金富軾이 新羅의 史
記를 지어 간략히 갖추어 놓았으나 學者가 東史를 오로지 연구하지 않고 또 그 板本이 오래

되어 낱아 훼손되어 世上에 刊行된것이 거의 드무니 君子가 심히 의구하게 되었다 公轍이 嶺南에 觀察使로 와 있을때 叅奉 金成杰이 慶州로부터 와서 나를 보고 雞林(경주의 고후)의 紀蹟의 글을 청하였다 잘한 일이다 그 근본을 추구하고 멀리 생각함이며 땅은 참으로 가히 傳해오나 사적은 땅보다 더욱 크니 어찌 가히 다 쓸수 있으리오 孔子께서 周나라에서 낳으시었으니 말씀하시기를 丘(孔子의 이름)는 殷나라 사람으로 스스로 微子の 後孫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夏나라의 禮를 내 능히 말하나 杞나라를 족히 증거하지 못하며 殷나라의 禮를 내 능히 말하나 宋나라를 족히 증거하지 못하니 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金氏로 四方에 흩어져 있는 이가 무려 千百家이지만 모두 新羅의 關智로 祖上을 삼으니 孔子의 殷나라를 말함과 다름이 없다 어찌 가히 夏殷의 禮로서 杞宋의 文獻이 不足하여 증거치 못할것인가 후에 이 碑文을 잘 읽는이가 있으면 무릇 誦하여 史記에 빠진 것을 補完할지이다 碑銘에 이르나니

을을한 저 계림이여 王業을 일으킨 터로다 崔라서 감히 공경치 않으리오만 나의 새긴 명문 비석에 있도다 오직 신라의 도읍이니 저 東京(경주의 고후)이로다 봉서(鳳棲)山은 붉은 玉 같고 汶水의 물길 맑게도 흐르도다 玉같은 맑은 물에 방어도 있고 잉어도 있도다 의복은 흰옷을 숭상하니 저 도읍 사람일세 女子들은 머리를 곱게 빗고 선비들은 상투를 쌓 올렸도다 그 풍속은 순박하여 두렵고 예의는 이마를 수그려 절함을 숭상하도다 혼인에 좋은 음식은 오직 술과 밥이로세 君子의 사는곳 즐겁고 즐거운 나라로다 오직 神人이 하강하니 崔氏 및 薛氏 등

일세 군세고 군센 角干(新羅 때 높은 벼슬의 一名)이여 꾀를 써 이웃을 쳤도다 오직 文과 武
로 四方에 법을 세웠도다 人才와 文藝가 비로소 열렸으니 재주있는 선비가 끊이지 않는도다
朴氏가 비로소 터를 두텁게 닦았고 朴氏가 또 강하게 만들었네 이미 신라로 일컬으니 문채가
빈빈하도다 그 처음 생김에 계림에서 탄강하였도다 金氏의 성한 문벌 이제까지 본 받음에 이
르렀도다 이렇게도 陰德이 두텁고 이렇게도 福祿이 길까 子孫은 百世토록 계속 번창하였도다
銘은 풍문의 노래를 캐 모았고 文은 일을 기록하는도다 고을 관장으로 서 직분이요 子孫의 永
思로다

가의대부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대구도호부사 규장각직제학지제
교 남공철(南公轍)은 찬 하노라

통정대부 경주부윤 겸 경상도 병마절제사 최헌중(崔憲重)은 서(書)하고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 교검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사관 후손 희주(熙周)가 전

(篆)하다

승정기 원후 三癸亥(純祖 三年・一八〇三年)二月 日

碑閣記文

故新羅國月城下葱蘢草樹之間小屋宇一朝突兀其爲制一極六面而甚緻麗中有三尺短碑篆曰雞林金氏誕
降遺墟此即雞林而閣之北古有標石存氏金者言始祖誕降實其地彷徨指點雞鳴櫓掛之處亦可想得也噫天

地間混沌精粹胚胎氣母居然成形者此太初成人之道而至若雞之在傍翼鳴使國人知之者又何理歟雞鳴司
丑丑即東方始明之時也羅氏王朴昔百十四年大樸猶存金氏受國歷王三十八世典章文物稍稍備具東方於
是乎始明矣豈天降真人將以闡人文而使神雞先告其祥者耶金氏以關智爲始祖而關智之生在於脫解乙丑
事亦靈異哉自乙丑至我 聖朝壬戌千八百二十年之間荒涼古跡宛如昨日金氏之行過是墟者瞻慕之敬愛
之有如周之平林漢之大澤咸以爲生民之地興王之跡不可泯滅合謀收物立碑以記其事愚於是乎尤有感焉
恭惟我

大王大妃以女中堯舜臨簾聽朝扶我億萬年之宗社而實維神聖之孫誕降亦於乙丑而過此數年
寶甲重回上而去始祖生年爲三十年乙丑金雞毓祥前後是年而箕東精淑之氣鍾在是墟者往往著驗如此宜
乎金氏之表而美之而不先不後必值今日者又豈非天人默應之道耶銘其碑者巡相公南公轍也書其銘者府
尹崔公獻重也篆以額之者姓孫丹山倅金君熙周也請其銘與書者叅奉金成杰也碑而無閣爲風雨所磨滅始
於壬戌孟冬翌年春功告訖爲之記閣

壬戌十月 日

生員 崔南復 記

碑閣記文(譯文)

옛 신라 나라 월성(月城·경주의 고호) 아래 푸른 숲 사이에 작은 마한 집이 일조(一朝)에 우
뚝 솟아 있으니 그 짜임새가 六面(육모로 생겼음)의 집인데 심히 섬세하고 아름다웁다 그 가
운데 석자의 단비(短碑)가 서 있으니 전(篆·六體의 一種 글씨)으로 계림김씨 단강유허(雞林金

氏誕降遺墟)라 쓰여 있다 이는 즉 계림으로 비가 북쪽에 옛날 표석이 있으니 金氏들이 말하기를 시조께서 탄강하신 곳으로 헤메다가 지점하였으니 닭이 울고 독(櫛 즉 케)이 걸려 있던 곳으로 또한 가히 생각키운 곳이로다 오호! 天地 사이가 아직 개벽하기 전에 순수한 원기로 아이를 배태하여 사물에 동하지 않고 본형을 이루었으니 이는 태초에 사람을 生成한 도(道)이니 이를테면 닭이 곁에 있어 날개치며 울어서 나라사람으로 알게끔 하였으니 이 또한 무슨 이치인가! 닭이 丑時에 우니 즉 東方이 비로소 밝아 오는 때이다 신라시대 朴氏와 朴氏가 일백십사년을 王位에 있었고 金氏가 왕위를 받아 三十八世를 지내는 동안 典章文物(제도와 문화)이 점점 갖추어졌으니 동방이 이로부터 비로소 밝아졌으니 어찌 하늘이 眞人을 내시어 장차 人間文化를 천발하게 하시니 신성한 닭으로 하여금 그 상서로움을 먼저 알렸음인가 金氏는 알지(閻智)로서 시조를 삼으니 알지의 낡음은 脫解王乙丑(西紀六五年)이니 사실이 또한 영험하고 기이하다 乙丑으로부터 우리 聖朝壬戌(純祖二年·西紀一八〇二年)까지는 一千七百三十八年間이다 황양(荒涼)한 고적이 완연히 어제 일 같으니 金氏로 이 유허를 지나는 이는 참모하고 경애함이 周나라의 平林 같고 漢나라의 大澤과 같으니 모두 生民의 지역이요 興王의 자취로서 가히 민멸(泯滅)치 못할 곳이다 죄를 합하고 재물을 건우어 碑를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니 愚(作者 자신의 겸칭) 이에 더욱 감회가 있어 쓰노니 공손히 생각컨데 우리 王大妃께서 女子가운데 堯舜같이 어진 분으로 받들 드리우고 朝廷의 政事를 들으시어 우리나라의 억만년(億萬年)의 宗社(종묘사직)를 도우시니 실로 신성한 자손으로 탄강하심에 또한

乙丑年으로 이후 수년을 지나 寶甲(회갑의 존칭)이 거듭 돌아오니 위로始祖의 生年 三十年을 지나 乙丑에 金雞(金雞)가 상서롭게 났으니 前後로 이해에 箕東(우리 朝鮮의 별칭)의 맑은 기운이 이 터에 났으니 왕왕 나타난 징험이 이와 같도다 마땅히 金氏가 表하여 아름답게 함이 앞서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아 반드시 이제 만났으니 또한 어찌 天人(하늘과 사람)의 잠잠히 응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碑銘을 지은분은 巡相(이곳에서는 慶尙觀察使를 말함) 公南公轍이요 碑文을 쓴 분은 慶州府尹 崔憲重이요 碑石에 전(篆·篆字體로 大字를 씀)을 쓴 분은 자손인 丹山고를 원님인 金君 熙周이며 碑文과 碑文글씨를 칭(請)한 이는 叅奉 金成杰이다 碑에 碑閣이 없어 비 바람에 씻기고 헐어서 碑閣建立을 壬戌(純祖二年·西紀一八〇二年) 孟冬(음력十月)에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일을 마치니 이로써 碑閣의 내력을 기록하노라

壬戌(一八〇二年)十月 日

生員 崔南復은 記하노라

敬順王陵既失復得後 致祭文

朝鮮國王某謹遣臣長湍府使沈鳳徵致祭于新羅 敬順王之陵維羅立國金櫝寶錄王丁未運大命將革生靈塗炭封疆日蹙量時度勢南面無樂香車寶馬挈歸圖籍弊屣千乘爲麗三恪興廢有時人不容力維以安民王心惻怛惟德攸施厥報靡忒不億其孫慶應沙麓有廟東泉享祀無斁大東千載王靈赫赫臨湍一坏王禮是式間經兵燹人莫能識理有顯晦今而迺得可徵可信幽誌顯刻爰命守土載新封築有感予衷倅官奠爵

丁卯正月二十五日知製

教 李德重 進製

敬順王陵既失復後 致祭文(譯文)

朝鮮國王 아무(某)가 삼가 臣下 長湍府使 沈鳳徵을 보내어 新羅 敬順王의 陵에 致祭하노니
오직 신라 나라를 세워 金楨·金欝(金楨·金欝)에서 임금의 탄생하셨네 王께서는 末運을 만나 큰
명(命)이 장차 바뀌니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땅이 날로 쭉그러지니 시운(時運)을 헤
아리고 형세를 헤아려 임금을 내놓았네 임금의 타던 수레 모두 내어 바치고 헤진 신발로 수
레에 타고 高麗에 세번 謁하였도다 흥망이 때가 있어 사람으로 어쩔수 없으니 오직 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王의 마음은 측은 하였도다 오직 덕을 베푸니 그 보답이 적지 않아 그 자손
헤아릴 수 없고 여경(餘慶)은 沙麓을 응하였네 사당이 東泉에 있어 향사(享祀)는 그침이 없
으니 우리 東方 千年에 왕의 영혼 赫赫하네 臨津 長湍의 한 무덤을 王禮(王陵)를 본보였는데
간간히 난리를 지내면서 사람이 능히 알지 못했었네 이치가 나타나고 묻혀짐이 있어서 이제
야 언었으니 가히 징거하고 가히 믿겠도다 幽誌(墓碑)에 기록된 글(을) 나타나게 새기고 고을
수령에게 명하여 새롭게 무덤을 쌓았으니 내 깊이 느낌이 있어 신하를 보내어 술잔을 드리
노라

丁卯()

()正月二十五日

知製 教 李德重이 進製(지어올림)

惟我宗中世系論辨有何差誤而尚未歸正至于今日乎譬如不見水之有源則不知派自何而流長不見木之有本則不知枝自何而分盛夫事有疑難則取正從詳自有明的按齊肅公派譜則大安君墓誌有八公子諱兄曰鑑次曰鎰次曰鳴鍾弟曰錫曰鍵曰鐸曰鍾按東國文獻備考則敬順王三子永芬公按高麗史則敬順王讓國後二十五年在松京王之第三子鳴鍾封永芬公四十一年第四子殷說陞工部侍郎第五子錫封義城君第六子鍵封江陵君第七子鐸封彥陽君第八子鍾封三陟君按樹隱公誌文則自永芬公至樹隱公十六世又按麗史則國朝年紀凡四百七十五年以三十年爲世則年與世相符按麗鑑則侍郎公諱正潤忠宣王朝兵部侍郎樹隱公諱冲漢忠肅王朝禮部典客令侍郎公諱南寶忠惠王朝門下侍郎推而攷之則辨有自定且有一言證焉波干侍中羅朝爵號而麗朝波干侍中猶有羅朝蒙爵之例自旃蒙亦奮若始譜之後伊來數百年吳中各修派譜不可勝屈蓋由誤不悟故謹按上系合成一部是乃吾宗信史則文獻有徵世德無愧豈不欽哉豈不歎哉一日族叔相益氏來余而謂曰相辨已久卒難自解今上系修成之日豈無一言諭知乎余作氣而言曰繼今已往已定派系渾淪之歸則復何有說明哉以無文不似固辭有日反而思之則後之視今猶今之視昔才無效於陸子之詞賦心有切於潘氏之家風敢忘僭越僅得潛周以余麗史東國文獻備考所按昔日巾緇中所遺平日家庭間所聞京鄉諸宗派譜所見謹述顛末置于卷中以備後日覽詳而攷易云爾

乙丑春正月陽復日不肖

后孫 圭煥 敬拜謹誌

우리 종중의 세계(世系)를 논변(論辨)함에 어찌 착오가 있어 오히려 바로잡지 못하니 금일에 이르러 비유컨대 만일 물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 물결이 어디로부터 길게 흐름을 알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를 보지 못하면 가지가 어디로부터 번성하게 나뉘어 짐을 알지 못한다 대체 일에

의심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정당한 것을 취하고 자상한 것을 좇은다면 스스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齊肅公 派譜를 살펴보면 大安君 墓誌에 八公子의 이름이 있으니 만형은 鑑이요
 다음은 鎭이요 다음은 鳴鍾이요 아우는 錫이요 鍵이요 鑑이요 鍾이다 東國文獻備考를 살펴보
 면 敬順王의 三子는 永芬公이라 하였다 高麗史를 살펴보면 敬順王이 나라를 고려에게 넘긴
 후 二十五年에 松京(개성의 고호)에 있는 왕의 第三子 鳴鍾이 永芬公에 封해졌다 하였고 四
 十一年에는 第四子 殷說이 工部侍郎에 올랐다 하였고 第五子 錫을 義城君에 封하였고 第六子
 鍵을 江陵君에 封하였으며 第七子 鑑을 彥陽君에 封하였으며 第八子 鍾을 三陟君에 封하였다
 고 하였다 樹隱公의 誌文을 살펴보면 永芬公으로 부터 樹隱公에 이르기까지 十六世라 하였다
 또 高麗史를 살펴보면 國朝의 年紀가 무릇 四百七十五年인데 三十年으로 一世를 한다면 年數
 와 世數가 서로 부합된다 하였다 麗鑑을 살펴보면 侍郎公 諱正潤은 忠宣王朝에 兵部侍郎이요
 樹隱公 諱冲漢은 忠肅王朝에 禮部典客令이요 侍郎公 諱南寶는 忠惠王朝에 門下侍郎이니 미루
 어 상고할진데 分별이 스스로 정하여 있으니 또한 한 말로 증거할 수 있겠도다 波干 侍中은
 新羅의 爵號(벼슬 이름)이니 高麗때 波干 侍中은 오히려 新羅朝의 무릅쓴 벼슬의 예이다
 梅蒙(古甲子에서 十干중의 乙) 赤奮若(古甲子에서 十二支중의 丑) 즉 乙丑年에 처음 修譜이
 후로 지금까지 수백년에 우리 宗中에서 각각 派譜를 닦음이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대개 어긋
 진 것으로 말미암아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삼가 上系를 안찰하여 一部를 모아 만들었
 으니 이는 우리 宗中의 信史(믿을 수 있는 사기)이니 문헌이 증거할 수 있고 世德은 부끄러움

이 없으니 어찌 흠양하지 않겠으며 어찌 찬탄하지 않겠는가 하룻날 족속(族叔) 相益氏가 나
 에게 와서 일러 말하기를 서로 분별한지는 이미 오래나 마침내 스스로 해득키 어려우니 지금
 上系를 닮는날에 어찌 한 말로 알기 쉽게 할수 없겠는가 하니 내 기운을 내어 대답하기를 지난
 날을 이어 이제까지 이미 派系를 定하여 온전히 되었는데 다시 무슨 說明을 할 것인가 그리
 고 글도 할줄 모르므로 굳이 사양하고 몇날이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뒷날 지금 보기를
 지금 옛날 보는 것과 같을것인 즉 재주는 陸子の 詞賦(詩文)를 본 받을수 없으나 마음은 潘
 氏의 家風보다 더욱 간절함이 있어 감히 참람함을 잊고 겨우 潛周를 얻어 내가 麗史와 東國
 文獻備考를 살펴 본 것과 옛날 집에 전해오던 책과 평일 가정에서 들은것과 京鄕의 諸宗의
 派譜에서 본것 등으로 삼가 顛末을 기술하여 책 가운데 비치하여 後日에 자상히 보게끔 갖추
 어 고증하기 편하게끔 함이라

乙丑)

(春正月 陽復日에 不肖

後孫 圭煥은 敬拜하고 謹誌하노라

族譜序

春秋는 나라의 역사이니 隨時 隨事 隨處를 기록하여 一統의 뜻을 크게 밝혀 後世의 法을 삼
 나니 만일 빠진 것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世代가 멀어질수록 제도가 무너지고 人心이 흩
 어지며 풍속과 교화가 쇠퇴하여 질것이니 나라라도 가히 나라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史氏(國史

를 기록하는 史官)으로 하여금 뒤따라 닦게 하는 것이다 族譜는 집의 역사이니 그 所自出(先代로 부터의 系統)과 生卒과 墓地와 그 系代의 繼絶(入系와 無后)과 旌閭 및 淑行등을 子孫에게 이르기까지 기록함이나 만일 빠져 쓰지 않는다면 派系가 호도(糊塗·모호하고 애매함)하고 生死가 번거롭게 되며 서로 떠나고 멀어지게 되어 친근한 정이 다하여 길가는 行人 보듯 함에 이르르게 될것이니 즐거운 일에도 경하지 아니하고 슬픈 일에도 조문하지 않을 것이니 長沙의 子孫을 분별할수 없으며 汾陽(唐나라 名將 郭子儀를 汾陽王에 봉하였으므로 일컬음)의 系統을 망녕되히 어긋지게 되며 西澗의 墓所가 황폐할 것이니 일가라도 가히 일가라 할수 없기 때문에 諸族(諸族)들이 뒤따라 닦는 것이다

우리가 족보를 한지가 이미 三十年이 지났으니 이제 거듭 경영하게 된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 었다 이에 甲子(西紀一九八四年) 봄에 諸族이 모아 상의하여 몇일이 못되어 일들을 시작하게 되니 이는 우리 宗中의 一大 거사이다

基中이 둔하여 이일을 경영하기는 실로 어려운데 욱되게 宗嗣의 孫으로서 책임이 있어 능히 所感이 없지 않아 그 전말(顛末)을 쓰게 되니 찬란함을 도망할수 없도다 오호! 우리 族譜를 보는 이는 孝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니 이미 이 마음이 있다면 후일 우리 族譜를 뒤이어 修譜하리니 내 근심할바 없겠도다 이에 序하노라

甲子(西紀一九八四年)二月下瀚에

不肖后孫 基中은 절하고 삼가쓰노라

慶州金氏璿源世譜

始祖

金闕智

漢明寧永平八年乙丑即昔脫解王即位之九年也春三月夜誕降于金城西始林有金櫃鷄鳴之瑞故以金爲姓改始林爲鷄林初拜大輔後追尊大王妃摩貞夫人昔氏父角于康造祖脫解王

二世

子勢漢
居西干

三世

子阿道
波干

四世

子首留
角干

五世

子郁甫
角干

六世

子仇道

二見